

## 진정한 학생회장의 필요

누군가는 말했습니다. 이 학교는 원래 이런 거라고. 하지만 이 사람은 "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?" 생각합니다.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메이킹 부서를 만들고,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하나씩 실현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. 누군가와 함께 활동한 시간이 생기부에 남을 수 있도록. 무언가를 기획하고 직접 만들어낸 경험 이 더는 흘려보내지지 않도록. 그래서 오늘도 기록으로 남는 활동, 의미있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고민합니다. 이 학교가 나아지길 그 사람의 이름은 우 알게 될 겁니다.



# 유현규

# 2